

‘침묵’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김 미 경*

국문초록

상담에서 침묵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동의 혹은 내담자의 자기탐색을 위한 상담자의 의도적인 침묵 행동 등의 침묵은 ‘말의 부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일반상담에서는 침묵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독교상담 관점에서 침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침묵과 내담자의 침묵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을 통해 예수의 침묵 반응은 어떤 의미인가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의 침묵은 이야기의 반전을 가져오는 통로를 제공한다. 예수의 침묵은 관계의 소외,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연결과 개선, 회복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야기는 경험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체현되고 말해진 이야기를 분석함으로써 내담자의 침묵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내담자가 지닌 경험 세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지식과 의미의 파악이 중요하다. 즉 내담자 경험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독특한 경험에 대한 기독교적 돌봄을 위해 이야기를 매개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기독교상담의 치료적 실체는 우리의 삶이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작품, 공동 저작이라는 본질적이면서도 새로운 해석과정이 되어야 한다.

주제어: 침묵, 이야기치료, 담론, 공동 저작, 기독교상담

• 논문 투고일: 2018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4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1일

* 서울한영대학교

I. 여는 글

침묵은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 정보전달보다는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더 비중을 두는 자기표현의 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체면과 예의 및 격식 그리고 정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는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기 위해 침묵을 통한 ‘자기희생’을 미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어적 측면보다는 비언어적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차는 있지만 문화적으로 허용된 방식을 이용한다(박혜인, 허경호, 2011).

침묵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및 행동을 표출하기보다는 친밀감 형성을 위해 거짓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친밀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실한 자기는 부인하고 거짓된 자기를 억지로 나타내는 사람은 우울해질 수 있으므로 침묵은 오히려 관계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침묵이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마음과 표현을 제한하는 자기-희생, 자기-부인적인 의사소통 패턴으로 볼 수도 있다.

침묵으로 인한 병리적인 현상은 상담 장면에서도 관찰된다. 내담자는 종종 “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라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할 때가 있다.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에서 침묵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동의, 또는 내담자의 자기탐색을 위해 상담자가 의도적으로 침묵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담자의 침묵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일 수도 있고 상담자에 대한 다른 생각이나 이의 제기일 수도 있다. 이처럼 침묵은 맥락과 대상에 따라 단순한 말의 부재 이상이

며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대개 상담에서 침묵은 상담 성과를 매개하는 치료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본다. 상담자의 침묵(silence)은 내담자를 격려하는 언어 반응이며, 특히 직면이나 해석과 같은 '상담자의 복합적인 언어 반응들'에 대해서 내담자는 더 많은 침묵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경진, 2009).

그동안 일반 심리상담과 조직 행동 연구 분야에서는 침묵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기독교상담 관점에서 침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예수의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침묵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으므로 맥락을 통하여 침묵이 뜻하는 나름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심리상담 관점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침묵 행동에 대한 의미를 간략히 고찰한 뒤 성경에서 나타난 침묵의 의미를 조명해 봄으로써 그동안 간과된 침묵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침묵 성향의 사람들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반대의 의견이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가능한 회피하는 것이 관계적 적응이라고 보는데(김기남, 최보영, 2017), 이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 이야기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기독교상담자와 함께 재저작(re-authoring) 함으로써 관계 만족과 자기보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고의 결어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한편 예수의 침묵 반응을 통해 기독교상담적 의미에서 침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를 함으로써 그동안 침묵을 고정적인 의미로만 인식한 채 논의를 전개시킨 것에 더하여 기독교상담의 렌즈를 통하여 일반상담에서 간과된 침묵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데도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침묵의 일반적 의미

침묵(self-silencing)은 1991년 Jack이 우울증 여성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Bowlby(1982)의 애착이론과 Gilligan(1982)의 관계 내 자기이론을 기반으로 체계화시킨 개념이다. 관계 내 자기모델(self-in-relation model)은 여성의 심리적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여성은 자신의 정체감을 분리와 독립보다는 관계 내에서의 성장과 발달을 통해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타인의 성장과 발달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며 이는 여성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국면이 된다.

여성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어 관계 형성의 실패를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로 경험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여성으로 하여금 친밀감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자신의 사고나 행동, 느낌 등은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되고 이는 자존감의 저하 및 상실로 이어져 관계 내에서의 자기감(sense of self in relationship)을 부적절하게 경험하게 되어 우울증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사회, 문화적 기대와 압력 속에서 성유형화된 양식으로 행동하도록¹⁾ 요구받아(Remen, Chambless & Rodebaugh, 2002), 자신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적절한 행동을 학습함으로써 침묵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Lemkau & Lauda, 1986).

여성은 여러 상황과 관계에 있어서 욕구대로 행동하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보다 자제하는 침묵을 학습함으로써 관계 유지와 친밀감을 형성

1) 침묵에 대한 연구의 초기 흐름은 여성들의 성역할 학습에 의한 성유형화된 도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여성보다 남성의 자기 침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려는 인지도식을 발달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는 관계에 있어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침묵은 관계의 유지와 수용을 받기 위해 동기화되지만 오히려 외로움과 관계에서 불만족을 초래하게 된다.

2. 상담에서 침묵의 의미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침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Matarazzo와 그의 동료들(1962)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대화 중의 침묵 빈도를 측정하였는데 95%의 침묵이 4.3초 이내임을 밝혔다(신경진, 2009). 상담에서 상담자의 침묵과 내담자의 침묵을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외견상으로는 내담자의 침묵으로 규정한 침묵도 상담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즉 침묵을 깨고 발언을 한다면 침묵은 성립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상담자의 침묵도 내담자가 허용하지 않고 발언을 한다면 침묵이 성립될 수 없다. 즉, 침묵은 대화 쌍방이 상대방의 침묵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신경진, 2010).

상담 과정에서 침묵은 겉으로 드러난 말은 아니지만 '말의 부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침묵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지닌 치료적 힘이 내재되어 있다(Blos, 1972).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내면을 관찰하기 위해 침묵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내담자가 보이는 침묵의 의미와 이에 따른 상담자가 취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우선 상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발생한 침묵은 대개 부정적일 수 있다. 상담자는 초기 회기에서 내담자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내담자가 자신의 느낌을 잘 표현하기가 어려워 침묵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담에서의 침묵은 언제 발생하였는가와 내담자와 상담자 중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평가될 수 있다(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2016).

상담에서 침묵은 언제 발생하였느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는데 대개 초기에 일어난 침묵은 내담자의 당황과 저항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내담자의 침묵을 해석하고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묵은 자기관찰과 탐색의 정서체험의 시간이며 인지적 처리와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상담의 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신경진, 2009).

상담자의 언어 반응들에 따라 내담자에게 부여하는 처리 부하량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의하면, 직면이나 해석과 같은 '상담자의 복합적인 언어 반응들'은 내담자의 침묵의 시간이 더 경과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한편 Clara E. Hill(1978)은 상담자의 침묵(silence)은 내담자에 대한 가벼운 격려와 함께 단순한 언어반응들에 포함시켰다. 즉 내담자의 침묵과는 달리 상담자의 침묵은 가벼운 반응들로 범주화²⁾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충분히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며 상담자도 내담자에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허용하는 것이 상담의 효과성을³⁾ 높일 수 있다(신경진, 2010). 내담자는 상담자의 개입에 대해 내재적으로 처리할 시간들이 필요하다. 직면이나 해석과 같은 복합적인 상담자의 개입일수록 내담자에게는 처리 부하량이 가중되어 이는 외견상 침묵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내담자가 자신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침묵을 할 때 상담자가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내담자의 상태를 선불리 짐작하는 개입

2) Hill은 상담자의 재언급, 반영, 해석, 직면을 포함하는 언어반응을 정보 부하량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복합적인 상담자 반응들"이라고 유목화하였다.

3)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침묵을 허용할 뿐 아니라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침묵으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이때 상담자의 침묵을 통한 압력이 치료적 힘을 발휘하려면 내담자와 작업 동맹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한 상담자의 침묵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의 침묵이나 상담 장면의 모호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며 내담자 스스로 내면을 충분히 탐색하도록 자극한다.

을 한다면, 내담자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설익은 상태로 작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주제로 화제가 전환될 수 있다.

한편 내담자는 일상 삶에서 자기침묵의 불편함을 타하며 상담을 할 수 있다. 자기침묵은 관계의 원만한 유지와 상호작용을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한하는 의사소통 패턴이다(Jack & Dill, 1992). 종종 내담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순응을 하면서 상담 현장에 와서 비로소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친밀하다고 지각되는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보다 우선시하여 챙기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 패턴이 장기화되면 억눌린 분노와 적개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침묵은 우울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내담자는 대개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것이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자신의 감정은 억제하는 경향을 지닌다(Thompson, Whiffen & Aube, 2001).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음으로 타인에게 순응하는 태도를 지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면에 분노와 적대감이 쌓이게 되어 이러한 감정을 또다시 억압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Jack, 2001).

내담자는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위협을 유발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모종의 강요된 침묵의 도식을 채택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수동적인 태도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 정서가 차단되는 패턴이 반복되게 되면 개인은 진정한 자신의 마음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개인은 침묵과 비언어 등에 진정한 감정을 감추는데 주로 심리적인 에너지가 동원되면 정서적으로 더욱 고갈되어 자기가치감의 상실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Jack, 1999).

이처럼 침묵은 우울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Jack은 대상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대인관계 애착을 위해 자신의 욕구와 생각을 자제

하는 대인관계 패턴이 학습되어 침묵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Lemakau & Lauda, 1986). 이러한 자기부정은 자기가치감을 저하시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Remen, Chambless & Rodebaugh, 2002).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하지 않고 정서를 억제하는 등 자기희생적인 패턴은 우울과 무가치감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침묵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우울에 상당한 취약성을 갖게 되어(Jack & Dill, 1992), 관계 만족을 저하시키게 된다(Remen et al., 2002).

자기희생과 자기를 부정한 보상으로 주어진 친밀한 관계는 진정한 친밀감이 아니기 때문에 외롭고 무기력해질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 관계 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애쓰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Harper, Dickson & Welsh, 2006). 내담자의 장기화된 침묵은 내면화되어 자신의 뜻과 의사를 표현하는 목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만성적인 침묵은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침묵 성향이 높은 내담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표현과 어조에서 여실히 관찰된다. 같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에 대해 상담자에게 묻기도 한다. 자기를 억제하고 의미 있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너무 양보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과 행동도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상담자에게 연이어 묻는다. 이 내담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상담자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타인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은 늘 속이 깊고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지만 대인관계에서 빈번히 적재되었던 자신의 분노 감정은 미숙하게 관리되어 그동안 노력해왔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허

망하게 무너지고 혼자 남게 됨을 호소했다.

내담자는 대인관계에서 못마땅함이나 불편한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면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무력감이나 분노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게 된다고 한다. 이 내담자의 가정환경은 자기주장이나 표현을 억제하고 아버지에게 순종적하기를 요구받는 환경이었다. 내담자는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고 착한 딸로서의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비추어졌다. 상담을 하는 동안에도 상담자에게 선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내담자는 가족이나 친구관계의 조화를 위해 강한 정서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내담자는 자기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에 능숙하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역으로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내적 감정을 억제하고 침묵하는 행동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담자의 친구들에 의하면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것이다. 내담자의 지나친 정서표현 자제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불편감을 자아냈고 친구관계도 소원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주변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 감정 및 정서표현을 억제하고 침묵하는 성향은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침묵과 정서억제

자기침묵과 유사한 심리적 지표인 정서표현의 억제(이하 정서억제: emotion suppression)는 어떤 정서가 발생했을 때 표현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표현을 하지 않는 그 이상의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Gross & Levenson, 1997). 즉 정서억제는 경험하는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을 감추거나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것을 뜻

한다 (Gross & John, 2003). 모든 대인관계는 정서적 측면이 포함되므로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을 무조건 억제하는 침묵이나 부적절하게 표출할 경우 관계적 어려움이 야기되어 삶의 질까지도 떨어뜨리게 된다(Tan & Carfagnini, 2008). 침묵은 정서를 억제하는 행동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정서억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고, 대인관계의 친밀도도 낮다(Gross & John, 2003).

필자의 내담자 중에 아버지가 동생과 비교하며 평가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내면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며 지내 온 사례가 있다. 내담자는 말이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요구받아 왔다. 이처럼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의 표현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관계의 조화를 위해 정서표현을 자제하는 성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정서를 억제하고 표출하지 않는 침묵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내담자의 장기간의 정서억제와 침묵은 신체화 증상을 동반하여 잦은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느껴지는 비진정성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eldon & Rian, 1997). 대인관계에서 내적 자아(inner self)의 연속성(continuity)은 덜 일치하게 된다(Tafarodi, Lo, Lee & Katsura, 2004). 관계의 조화를 위해 개인의 성향이나 일관성은 희생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 내면의 경험은 외적 침묵으로 위장된다.

침묵으로 인한 내적 감정과 외적 행동의 비일관성은 특히 사회적 요구나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도록 강조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빈번하다. 내 집단(in-group)과의 소속과 관계 유지를 위해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을 더 억제하게 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서억제를 많이 하는

개인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억제 전략을 빈번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억제하지 않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게 되어 우울 성향이 높고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으며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하였다(Gross & John, 2003). 정서억제를 습관적으로 할 경우 우울과 불안 등이 유발되어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불쾌한 사건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정서들은 무기력과 슬픔을 자아내어 위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만성적인 정서억제는 타인과의 공유경험이 결핍되어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관계 유지를 위해 자기표현을 억제하거나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는 수동적 의사표현 등의 특징적 양상을 띤다. 또한 침묵은 외적 기준의 잣대로 자신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못마땅한 상대방의 의견에도 표면적으로 순응하거나, 자신보다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우선시하는 등의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서표현을 자제하는 침묵의 성향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인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억눌러왔던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 기독교적 전통적 믿음(덕목)으로 간주되어 왔다.

4. 성경에서 침묵의 의미

복음서에는 예수의 어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에서 자녀의 병고침을 갈망하는 여인의 외침에 예수의 첫 반응은 침묵이었다. 마태복음 15:21-28에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의 침묵은 자못 우리의 기대를 배반한다. 본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질병을 호소하며 침묵하지 않은 여성과 이에 침묵으로 응수하는 예수의 외면으로 긴장

감이 감돈다. 예수의 침묵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이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여인의 자녀는 사회적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여 급기야는 사회적 철수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귀신 들림의 현상을 정신의학에서는 대개 정신분열증으로 이해하는데, 대상관계이론은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다양한 정신병리적 상태는 특정 단계에 발달의 이상으로 설명된다. 정신분열증, 자기애적 성격장애 및 경계선적 성격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는 대상관계의 관점을 사용한 임상적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정신분열증은 생애 초기의 심리적 성장의 와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절규하여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마 15:23)의 침묵 반응은 여인을 무시하는 비정당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여인의 간청에 예수의 침묵은 역설적이며 충격적인 상흔이다. 예수의 침묵으로 여인은 억압과 무시의 경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으며 예수의 이어진 '개 비유'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즉 상식과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예수의 침묵과 부당한 발언은 여인을 고통의 한복판으로 내몰아친다. 여기서 예수의 침묵은 경청을 위한 치료적인 침묵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많은 논란이 따른다. 침묵에 연이은 예수의 비정한 독설로 여인은 그동안 쌓인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개로 취급한 예수의 부당한 현실 앞에서도 여인은 포기하거나 침묵하는 굴레에 갇히기를 거부한다. 예수의 침묵은 오히려 여인으로 하여금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예수의 침묵은 의도적인 행위로서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여인에게 오히려 강하게 전달된 것 같다. 예수의 침묵은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행동일 수 있다. 예수의 침묵과 독설은 아이러니컬하게

여인을 주체적으로 이끌며 현실의 장벽을 두려움 없이 직면할 수 있게 한다. 예수의 반응은 여인이 지각하는 세상의 시선을 대변해 줌으로써 미숙한 참가자의 일면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침묵하는 예수의 무관심은 여인으로 하여금 원초적인 불안과 분열의 원초적인 방어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예수의 행적은 여인에게 희망적인 복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딸의 고통을 외면하는 예수의 무심함은 나쁜 대상으로 대체되면서 분열을 가져올 법하다. 그러나 예수의 문제적 발언으로 갈등과 상처가 깊어지기보다는 여인의 응수로 치료적인 대화의 방향으로 반전된다. 여인은 예수의 침묵과 냉혹한 발언에 쉽게 실망하지도 당황해하지도 않으며 마치 상담자가 보이는 수용의 태도로 '개' 인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때 여인이 예수에 대한 불쾌한 정서를 억제하고 회피하였는가의 단면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모을 수도 있다. 그동안 심리학에서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경험회피'란 어떤 순간에 원하지 않는 자신의 내면 경험(생각, 느낌, 신체감각 등)을 체험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으로 경험회피가 높은 경우,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경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될 만한 내용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잘 받아들이면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Kashdan & Steger, 2006).

산상수훈의 소문을 통해 알게 된 예수는 선한 대상이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임이며'의 예수의 말씀은 여인에게 복음이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어머니의 심정은 애통함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예수의 산상수훈은 여인에게 희망과 선한 대상(good object)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예수의 첫 반응은 냉대하는 침묵이었지만 여인은 예수에 대한 대상항상성(object consistency)이 잘 확립되었던 것 같다. 산상수훈과 병든 자를 고쳐주시

는 예수에 대한 '좋은 대상' 과 병든 딸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예수의 반응은 '나쁜 대상' 이 분명하다. 여인의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해주지 않는 예수는 분명 여인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실망과 좌절의 상황은 공격적 에너지를 발산시키며 대상(예수)을 가치 절하시킨다(이재훈, 1999).

그러나 여인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표상이 하나의 전체적 표상으로 통합된 대상향상성이 확립되었던 것 같다. 정서적 대상향상성이 잘 확립되었기에 여인은 어느 정도의 무시와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통합된 표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인에게 예수는 좋은 대상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인은 예수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기대했으며 이해와 사랑의 치유를 제공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각양각색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는 여인에게 선한 모성, 고갈되지 않는 측은지심의 원형으로 기대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예수가 안아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여인의 필요에 예수가 지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예수의 침묵과 제자들의 성가시다는 반응에 이어 잃어버린 양이 아님을 주지시키는 예수의 반응, 이어 최악의 '개' 취급은 연속적인 좌절의 결과이다.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좌절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는가. 딸을 어린 시절에 잘 돌보지 못한 박탈 경험의 제공자로서의 죄책감인가 아니면 모성애의 발로인가. 분분한 해석들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예수에 대한 여인의 대상표상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수의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 경험이 주어져도 여인이 원하는 것에 결국 예수는 반응해 주며 제공해준다는 대상향상성이 여인의 건강한 믿음에 핵심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침묵에서 시작된 예수의 무시하는 반응에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까지의 예수의 반응은 모성적 몰두(primary maternal preoccupation)를

연상시킨다. 예수의 사역은 쉽 없이 바쁜 일정으로 진행되었지만 물려서 지 않는 여인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결국 여인을 위해 예수는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헌신하고 있다. 예수가 여인에게 집중하며 자신을 맞추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인은 예수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의 실제 세계와 대면하게 되고 자신의 요구를 끈질기게 관철하면서 믿음의 여인으로 등극하게 된다. 예수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인은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변화된 예수의 반응을 마치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돌봄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자들까지도 여인을 외면했지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예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예수는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가 아닌 '믿음이 크도다'의 언급으로 양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이후의 여인의 삶의 굴곡에서도 자아의 자율적 기능이 극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모자가정의 현실적인 장애물 앞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여인에게 안전감 발달에 중요한 본루가 될 것이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여인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와의 대상경험을 통해 '영적 탄생'이 이루어진다. 여인은 예수와의 관계를 맺었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예수에 대한 안정된 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예수의 부재 시에도 내적 표상을 지니게 되어 큰 믿음을 지닌 자기와 예수와의 관계가 잘 확립된다.

한편 아이러니컬한 하나님의 침묵 사건이 입다의 스토리에서도 발견된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급하게 저지하신 하나님과는 달리(김미경, 2011), 입다의 내러티브에서는 잠자코 계신다. 하나님의 침묵은 입다에게 가장 큰 비극이다. 입다의 무남독녀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 부지불식간에 죽음에 처하게 된 입다의 딸은 죽음의 희생양이 아니다.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한 희생적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주인공으로 반전을 가져온 인물이다. 신학자들은 아버지의 불신앙적 서원에 대하여 심판하는 여인이며 궁극적으로 누군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대신하여 희생한 대속적 죽음의 전통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 실제 삶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희생에 대해서 더 크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구현체로 보증하신다. 인간 삶의 현장의 애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다. 입다의 무남독녀의 죽음으로부터 예수의 대속적 희생이라는 적극적인 반전의 행위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의 극치로 구현될 대속적 희생의 전통을 세운다.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상담과 직접 연관된 침묵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침묵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모세의 동족을 위한 민족애는 살인자로 실추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절실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홀로 두고 어떤 음성도 모세에게 들려주시지 않았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리를 제안하신다. 40년간의 침묵을 깬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감격보다는 분노를 간접적으로 토해내는 일종의 저항하는 모습을 출애굽기(출 4:10-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언서에도 하나님의 어록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말라기서에는 전체 55구절 가운데 47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신앙공동체로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죄악의 늪으로 빠져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아낌없이 들려주고 계신다. 그러나 이 음성을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

신다. 말라기 마지막 장인 4장과 마태복음 1장은 성경의 한 장 차이지만 400년간에 걸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 침묵은 인간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친히 사랑의 실체가 되어 이 땅에 현현하시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의 개시인 첫 단추가 침묵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5. 침묵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돌봄

내담자의 일상 삶에서 보이는 침묵의 패턴은 대개 사회문화적인 담론(discourse)의⁴⁾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Zimmermann & Dickerson, 1996). 내담자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침묵 성향들은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내담자가 지닌 경험세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지식과 의미의 파악이 중요하다. 내담자 경험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독특한 경험에 대한 기독교적 돌봄을 위해 내러티브를 매개로 접근해보는 것이 유용하다. 즉 문제를 가지고 오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조력 방법인 것이다.

한 개인의 삶의 근사치는 내러티브로 표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 이야기치료는 1980년대에 호주의 Michael White와⁵⁾ 뉴질랜드 출신의 David Epston에 의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상담 분야에서 적용되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0년 이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야기치료는

4)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 따르면 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지식이나 힘에 대한 규제와 감시의 차원인 것이다. 화이트는 이러한 푸코의 담론에 관한 철학적 작업을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이야기치료에서 담론은 한 개인의 인생과 정체성을 지배해 온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5) 마이클 화이트(1948-2008)는 2001년과 2004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이야기치료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에도 이야기치료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화이트는 인간의 내재된 병적인 문제보다는 내적인 가능성들과 대안적인 역사를 찾고자 하였다.

사회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을 기반으로 모든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적이고 다양한 진실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내러티브는 경험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체험되고 말해진 이야기를 분석함으로써 내담자를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내러티브는 내담자의 욕구와 기대, 삶의 가치 등을 구체화시켜 실천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내러티브는 살아 있는 삶의 복합성과 개인의 시간적, 상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갈등과 숙고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삶의 근사치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러티브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 의미의 구조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정의 역사, 사회, 문화적 차원이 개입됨을 견지한다.

내러티브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에 대한 단순 기술과 설명을 넘어선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으며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내담자의 체험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여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내러티브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경험된 현상들과 사람들이 교류하는 관계들의 실제들을 기술함으로써 사람들의 체험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제공한다. 인간의 경험은 해석이 가해져야 하는 불연속적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인간의 경험은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불연속과 모순, 갈등과 불안정이 점철된 연속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마이클 화이트(Michael White)에 의해 시작된 ‘이야기 치료’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존의 심리치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담과 심리치료 영역에 이야기치료를 도입하여 치료적인 과정과 대화 및 기법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야기치료를 현장에 적용하기 원하는 일반심리 상담자와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치료적 작업 속에서 실제적이고 임상적인 치료적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

치료 장면으로 가지고 오는 내담자의 침묵 경험은 이미 침묵으로 인한 문제 이야기에 맞설 수 있는 대안 이야기의 잠재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상담자에게 비친 내담자의 침묵 이야기의 이면에는 새로운 대안 이야기(alternative story)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 마이클 화이트는 상담자에게 가져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반드시 문제 이야기로만 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문제 이야기로 보일지라도 다수의 대안적인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치료자의 역할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삶을 침묵과 수동성이 아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상담자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으로 해석해내는 작업으로 내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스스로 묵살해버릴 수밖에 없는 침묵으로 제어당하는 혹독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동적인 개입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행위의 주체자'가 되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는 대안 이야기에서 진일보된 관점으로 행위의 주체자의 인식을 전제로 하는 '선호하는 이야기'로 설명된다. '선호하는 이야기' (preferred story)는 기존의 '대안 이야기'보다 행위자의 주도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마이클 화이트는 선호하는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가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자"(personal agency)임을 인식시킨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침묵으로 인한 문제 이야기에서 선호하고 희망하는 삶으로 반전되는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하여 이중경청(double listening)의 자세로써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내담자가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제어하는 침묵의 문제이야기를 치료 현장 속으로 가지고 온 것은 이미 문제 이야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 이야기의 가능성과 실마리가 내포되어 있다. 치료자는 문제 이야기에 가려진 내담자의 삶의 주도권을 향한 몸짓을 인식하여 내담자가 선호하는 삶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내담자의 삶에 드리우진 문제 이야기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absent but implicit) 내담자의 가능성을 탐사할 수 있도록 치료자는 내담자와 상호 협력하여 희망하는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담자는 문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체자로서의 인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이야기 속에는 내담자가 알고 있는 부분과 내담자의 이해를 넘어선 영적인 지평이 존재하고 있음을 신앙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내담자는 스스로가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 한복판에 놓여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가리어져 하나님이 현재 내담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 부단히도 일하시고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내담자는 여전히 문제 경험에 뒤덮여 있음을 기도의 무응답 즉 하나님의 침묵으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의 삶의 의지와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도 교두보를 확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400여 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한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문제 이야기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의 이야기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신 것이 실례가 될 수 있다.

Ⅲ. 닫는 글

우리문화는 침묵을 대개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상대적으로 여성과 하위계층에게 침묵이 더 요구된다. 자기침묵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마음과 표현을 제한하는 자기-희생, 자기-부인적인 의사소통 패턴이다. 또한 침묵은 외적 압박에 압도되어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철회한 행위일 수도 있으며 마땅치 않은 상대방임에도 어쩔 수 없이 동조하여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등의 복잡한 암묵적인 행위가 얽혀 있기도 하다. 자기-희생 도식의 침묵은 지배적인 담론으로 영향력을 지니게 되어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게 된다.

내담자의 침묵은 직면이나 해석과 같은 복합적인 상담자의 개입에 대해 내담자의 처리 부하량이 가중되어 침묵 패턴으로 나타난다. 상담에서 내담자는 충분히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며 상담자도 내담자에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허용하는 것이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상담현장에서 자기-희생적인 내담자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타인을 위해 오히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잠자코 계신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매우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로 구현되어 나타난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의 실체로 드러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의 이해가 뿌리내리고 있는 기독교 전통과의 깊은 대화에 내담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내담자의 경험 속에서 지배적인 문제 이야기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기독교 전통을 근거로 하여 발굴함으로써 치료적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내담자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지향할 수 있는 희망의 빛줄기를 기독교 전통 속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상담자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문제 이야기에 내담자와 함께 마침표를 찍고 선호하는 삶의 이야기로 새롭게 저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희생적인 구속의 은총을 인식시키는 놀라운 반전의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절망으로 점철된 문제 이야기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반전되는 이야기의 연속이다.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치료 현장에서 성경에 눈과 귀를 온전히 향하게 하여 절망에 반대적인 희망과 소망이 성취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형들의 배신과 모함으로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임신을 못해 브닌나에게 조롱을 당하는 한나의 절망적인 이야기, 서자 출신의 한 많은 입다의 이야기 등의 성경에는 문제로 가득 찬 삶의 경험들이 농축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모두의 극심한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선호하는 이야기로 역전시켜 삶의 회복으로 전개하셨다. 예수 자신도 보이는 사역에 의하면 인간들의 배신으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실 그 이면에는 전인류의 구원을 위한 회복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즉 기독교상담의 치료적 실체는 우리의 삶이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 작품, 공동저작이라는 본질적이면서도 새로운 해석과정이 되어야 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침묵 행위로 삶을 고통스럽게 지각할지라도 인간의 삶에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닌 능동적이면서 역동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선호하는 이야기로 충분히 반전될 수 있다.

기독교상담자는 침묵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상담자의 침묵이 내담자에 대한 망설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실존에서 벗어지는 힘겨운 문제들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대답’ 자체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김

성환, 2017).

상담이 진행되면서 무겁고 적막함이 감돌아 양자 간의 대화가 잠시 멈추게 될 때 내담자는 상담자의 의도와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침묵의 흐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침묵을 통해 그동안 내담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간과되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 치료자인 마이클 화이트는 치료적 대화를 강조한다. 이야기치료의 실체는 내담자의 문제 이야기가 선호하는 이야기로 반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료실제의 현장에서 치료자 단독의 치료적 대화법이나 기술로 선호하는 이야기로 반전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 단독으로 저작되는 이야기는 자칫 반전의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이야기의 반복이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치료 현장에 개입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반전 이야기로 재저작(re-authoring)될 수 있는 근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로 가득 찬 이야기일지라도 건강한 미래의 이야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허용하시기 때문이다. 기독교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침묵과 연관된 문제 이야기를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으로 해석해주는 사람이다. 즉 내담자의 의미언어를 재건하도록 해석해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다. 의미를 구조화하는 작업의 중심에는 신앙과 연계된 궁극적인 목적의 물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상담은 신앙과 세계관에 기초하여 내담자가 지배담론의 종속에서 벗어나 내담자의 선호하는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고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내담자들의 내러티브가 새로운 이야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김미경, 2015),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선호하는 이야기와 내담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조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상담은 유일한 하나님이 내담자가 대안적인 이야기를 재저작할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복음적인 진리를 통해 삶의 동기와 힘을 주어야 할 것이다(안경승, 2015).

기독교상담은 내담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내담자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치료적 대화를 통해 비로소 인생의 공동저자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참여될 때 한 개인의 삶은 빈약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풍성한 이야기로 재저작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기남, 최보영 (2017).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에 및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9(1), 121-141.
- 김미경 (2011). 외상후 성장(PTG) 모델로서 이삭, 요셉 이야기. *신앙과 학문*, 16(4), 7-31.
- 김미경 (2015).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기독교 상담적 돌봄: 이야기 치료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2), 41-68.
- 김성환 (2017). 개혁주의 상담학 관점에서 본 사티어 모델의 종교적 함의와 Paul Tillich 신 이해에 대한 담론. *복음과 상담*, 25(2), 117-147.
-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2016).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박혜인, 허경호 (2011). 한국형 소통 스타일 하부 차원 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 7-57.
- 신경진 (2009). 상담자 언어반응유목별 상담자와 내담자의 반응시간.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43-860.
- 신경진 (2010). *상담의 과정과 대화 기법*. 서울: 학지사.
- 안경승 (2015). 기독교상담에서의 성화의 관계성 연구. *복음과 상담*, 23(2), 195-222.
- Blos, P. J. (1972). Silence a clinical exploration. *Psychoanalytic Quarterly*, 41, 348-363.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Greenberg, J. R., & Mitchell, S. R. (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이재훈 역,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83 출판).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Harper, M., Dickson, J., & Welsh, D. (2006). Self-silenc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435–443.
- Hill, C. E. (1978). Development of a counselor verbal response category syst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461–468.
- Jack, D. C. (2001). Understanding women's anger: A description of relational pattern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2(4), 385–400.
-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 97–106.
- Kashdan, T. B., & Steger, M. F. (2006). Expanding the topography of social anxiety: An experience sampling assessment of positive emotions, positive events, and emotion supp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17, 120–128.
- Lemakau, J. P., & Lauda, C. (1986). The 'selfless syndrome': Assessment and treatment considerations. *Psychotherapy*, 23, 687–697.
- Matarazzo, J. D., Hess, H. F., & Saslow, G. (1962). Frequency and duration characteristic of speech and silence behavior during interview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 416–426.
- Remen, A. L., Chambless, D. L., & Rodebaugh, T. L. (2002). Gender difference in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151–159.
- Sheldon, K. M., Rian, R. M., Rawsthorne, L. J., & Ilardi, B. (1997). Trait self and true self: Cross-role variation in 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 and its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authentic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380–1393.
- Tan, J., & Carfagnini, B. (2008). Self-silencing, anger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35(2), 5–18.

- Tafarodi, R. W., Lo, C., Lee, W. W., & Katsura, H. (2004). The inner self in three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97–117.
- Thompson, J. M., Whiffen, V. E., & Aube, J. A. (2001). Does self-silencing link perceptions of care from parents and partners with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 503–516.
- Thompson, J. M., Whiffen, V. E., & Foot, M. L. (2007). Self-silencing mediates the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6), 993–1006.
- Zimmerman J., & Dickerson, V. (1996) *If problem talked: Narrative therapy in ac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Abstract 】

Approach to ‘Silence’ from Christian Counseling Perspective

Kim, Mi Kyung

Seoul Hanyoung University

In counseling, silence may be interpreted as various meaning. The counselor’s silences such as those in consent to client’s feeling and thoughts or those intended to induce client’s self exploring etc, contain more than just ‘absence of speaking’. So far in psychological counseling, researches have been actively pursued on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silence. However, study on ‘silence’ from Christian counseling perspective is scarce. In this regard, this study mainly reviews what meaning Jesus gave us in his silent response, through counselors’ silence and client’s silence as well as Jesus’ counseling described in the Gospels. Jesus’ silence provides the path to the reversal in client’s story. Jesus’ silence derives the narrative of connection, improvement and recovery of relationship, rather than alienation, severance. Narrative can be used as the tool to understand client’s silence, through experience as the method to access the true substance of experience and by analysis on the narrative that has been experienced and spoken. In other words, in order to approach the substance of client’s experience, it is useful to use a narrative as a medium, looking after the unique experience of a person in Christian ways. The therapeutic practice in Christian counseling shall be the process in the new and essential interpretation that human life is the co-authoring of the human and the God.

Key words: silence, narrative therapy, discourse, co-authoring, Christian counseling.